**프로젝트 후기**

|  |  |
| --- | --- |
| 프로젝트 주제 | Oracle 쌍용 학원 관리 시스템 |
| 프로젝트 기간 | 2023-09-08 ~ 2023-09-18 |
| 프로젝트 개발 환경 | Windows 10, oracleDeveloper, macOs |
| 프로젝트 개발 도구 | Oracle, git, eXERD, oracleDeveloper, drawio |
| 프로젝트 구현 기술 | ANSI/SQL, PL/SQL |
| 프로젝트 담당 업무 | 로그인, 관리자 기초정보 등록, 교육생 성적조회, 출결 입출력 |

|  |
| --- |
| 프로젝트 후기(일반적인 후기, 업무에 관련된 후기, 프로젝트 완성도에 대한 후기 등..) |
| 선생님이 일정 기준 글로만 작성된 틀을 보고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이였다  이전 자바 프로젝트에서 순서도의 중요성을 느끼고 먼저 글을 해석하여 순서도를 작성 했다  순서도를 작성하니 팀원들의 업무분배와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눈에 보기 편했다  더미 데이터를 작성하면서 출결은 다른 팀원 것이 였으나 계산해 보니 데이터가 약 7만건 정도 나오는걸 알고 내가 가져가기로 했다 그렇게 교육생과 출결 더미를 만들었다  자바로 한번 만들어 놨더니 수정사항이 생겨도 코드를 살짝 바꾸는 거로 수정이 가능했고 insert 쿼리문을 만드는데도 금방 만들었다. 자바는 마치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동적인 계산기 같았다. PL/SQL의 경우 자바의 변수, 메소드, 조건문등 과 비슷한 느낌 이였는데 사용법이 익숙치 못해 첫작성에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팀원들도 같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아 기초정보의 CRUD를 먼저 작성하여 참고 자료로 나누어 주었다.  자바와는 다르게 모든게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촉박해 유효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혹시나 팀원 중 한명이 제대로 수행 하지 못 할까 봐 일단 내걸 먼저 빠르게 만든 후 모든 팀원의 코드들을 통합 하면서 코드 리뷰를 해줬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 만들어 주어서 후반엔 수월하게 프로젝트가 진행 되었다.  SQL이 자신 없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전체적인 구조와 순서가 머릿속에 박힌 것 같아 보람찼다 |
| 팀원으로서의 후기(협업시 느낀점, 개인 태도, 트러블 슈팅시 해결책 및 느낀점 등등 구성원으로서 느낀점들 기술) |
| 늦은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 절박함이 있는 태도로 열심히 진행 했다. 모든 팀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성실도가 떨어지는 면이 존재 했다. 개인의 역량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이 것을 가지고 남 탓을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 나가 시스템을 파악하고 내 것을 먼저 완료한 후 팀원을 도와 주는게 낫다고 판단하여 급박하게 진행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큰 트러블은 없어서 다행 이였다. |
| 개발자 후기(본인이 개발자로서의 달라진점, 프로젝트가 본인에게 미친 영향, 향후 어떻게 해야겠다 등..) |
|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내가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진행 순서를 파악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익숙하지 못 하다 보니 구조를 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 시간에 팀원이 할 일이 붕 뜨게 되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먼저 빠르게 할 일을 마치고 팀원들을 도와 주려고 했지만 팀원들도 잘 따라와 주는걸 보고 심적으로 팀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걸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면서 혼자 기초 틀을 잡는게 아닌 모두의 협력으로 팀원을 믿고 진행하여 기능만 되는 프로젝트가 아닌 완벽한 프로젝트를 구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